

현대패션에 나타난 빈곤미의 조형적 특성에 관한 연구

현지연[†] · 채금석

숙명여자대학교 의류학전공

A Study on Formative Characteristics of Poor Beauty in Modern Fashion

Ji-Youn Hyun[†] · Keum-Seok Chae

Dept. of Clothing & Textile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2007. 2. 20. 접수)

Abstract

Modern fashion industry creates complex and multiple fashion by amalgamating and mixing all elements that emerged in fashion without limiting them to a specific genre. The results of study are as follows: First, with regard to the conceptual differences among poor look, anti-fashion, and resistance fashion and the background. second, As aesthetic categories of poor beauty, its image with the feeling of poorness, beggar-likeness, worthlessness, poorness, and uncleanness is divided into the beauty of moderation, deconstruction, unfinished beauty, natural beauty, and ostentatious poor beauty based on the formative characteristics and poor look. Third, Oriental and Western poor images are comparatively analyzed. The poor beauty found in Oriental fashion, which is based on Zen aesthetics, seeks loneliness, poorness, and simplicity as an empty origin and features internal meaning that expresses the purity of poor beauty itself and external form that is visualized through no decoration, no color, and asymmetry in material and composition. The poor beauty in the West features non-form of no shape, asymmetry and disharmony and the characteristic in its contents is "distortion", and the characteristic in its expression features external form of "incorrectness" and internal meaning implying modern humans' frustration, resistance to materialism, and skepticism about mechanicalism.

Key words: Poor, Poor look, Poor beauty, Anti-fashion, Resistance fashion; 빈곤, 빈곤이미지, 빈곤 룩, 안티패션, 저항패션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현대패션은 복잡함, 화려함, 부유함, 아름다움 등에서 벗어나 소외된 주변적인 것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고 추를 미의영역으로 인정하는 시각의 전환으로 미적 균형을 충족시키는 새로운 복식의 미를 표출하는 빈곤미를 제시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동안의 빈곤

미에 대한 선행연구로는 부와 빈곤이라는 양면적 가치에 관한 연구 혹은 포스트모더니즘의 현상에 의한 현대 패션에 나타나는 조형적 특성으로 분석하는 연구가 대부분을 차지하여 빈곤미를 활용한 탐색적 연구의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빈곤미의 현대패션의 변화과정과 그 요인 및 디자인을 분석하여 그 중요성을 밝혀내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빈곤미에 대한 정의와 발생배경을 고찰한다. 둘째, 시대별 패션에 빈곤미에 나타난 조형적 특징을 분석한다.

[†]Corresponding author
E-mail: jylady@paran.com

셋째, 현대패션에 나타난 빈곤미의 특징을 비교 분석하고 그 미래를 전망해보고자 한다. 연구의 범위는 2000세기 초반부터 2005년 S/S까지로 제한하였다. 현대 패션에 나타난 빈곤미의 범주를 정의하고 이 범주 내에서 빈곤미로 인정되는 색상과 소재, 디테일의 현대패션디자인으로 한정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문헌연구와 실증연구를 병행하였으며 문헌연구로는 국내 외 단행본과 간행물 및 선행 연구논문을 중심으로 하였으며, 실증연구의 시각적 자료는 2000년 1월부터 2005년 3월까지의 국내 외 패션전문잡지 및 신문, 패션저널, 국내 외 브랜드의 광고사진 및 컬렉션 사진(Vogue, ELLE, GAP, Fashion Show, Fashion Insight, Fashion News, Fashionbiz, Fashion Gio, Prêt-à-Porter Collection 등) 인터넷(www.firstvivi.com, www.cft.or.kr) 등을 대상으로 하였다.

시각적 자료의 객관성을 위해 20인의 관련 전공자들이 빈곤이미지의 패션으로 선별한 남녀를 구분하지 않은 200컷의 사진을 실증자료로 활용하였다.

II. 이론적 고찰

1. 빈곤미의 개념

복식에 나타난 ‘미’란 ‘아름답다’라는 형용사로 미는 사물, 행위, 사상, 언어, 마음 그리고 실험, 증명, 창작 등에까지 적용 된다(김민자, 2004). 현대의 패션은 그 동안 복식을 구별했던 이분법을 해체시켜 양자를 모두 인정한 패션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이봉덕, 2001). 이러한 패션현상으로 나타난 빈곤미를 살펴보면 빈곤(貧困)의 사전적 의미는 기본적 욕구가 충족되지 않은 상태를 일컫는 말로 빈곤의 영어단어, poor, poverty, needy, destitute, indigent는 가난한, 보잘 것 없는, 하찮은, 결핍된, 불쌍한, shabby는 초라한, 덩수룩한 차림의, 누더기를 걸친, 낡아빠진, beggarly는 거지같은, 빈약한, 초라한 이라는 의미를 가진다(최태경, 2000).

본 연구에서는 현대 여성복식의 다양한 흐름 중에서 기존의 복식관념에서 벗어나 “아름답지 않은 미로서의 아름다움” 즉, 개성적인 것, 일상적인 것, 하찮은 것, 추한 것 등이 만들어 내는 다양한 가능성의 미를 빈곤미라 정의하고, 확고한 개념정의를 위해 빈곤미의 현상인 안티패션과 저항패션의 개념과 특징을 고찰하여 빈곤 룩과의 공통점과 그 차별된 특징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빈곤 룩

복식에서 빈곤을 나타내는 형태는 외적으로 부를 상징하는 디자인 요소를 버리고, 부에 대한 직접적 과시대신, 절제, 간소, 나아가서는 오히려 빈곤하게 보이도록 가장하는 역설적인 스타일 또한 빈곤해 보이는 디자인 요소를 선택하여 디자인하여 은폐하고, 찢고, 불규칙한 햄 라인, 울 풀기 등으로 나타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새로운 가치와 미학의 출현에 맞추어 복식에 빈곤미의 특징적인 디자인 요소들을 아이디어로 응용하고 가난한, 하찮은, 결핍된, 초라한, 누더기, 낡아빠진, 불완전한, 결함이 있는, 빈약한 등 <사진 1>과 같이 빈곤한 이미지를 차용하여 다자이너의 감성에 의해 재해석시킨 패션을 빈곤 룩이라 정의하고자 한다.

2) 안티패션

안티패션은 유행현상에서 탈피하여 자립적인 미의식에 의한 라이프스타일을 지향하는 것이라 했다(www.fashiontalk.com). 20세기 후반에 접어들면서 대중들의 새로운 사고와 이에 대한 의지표명, 산업발달로 인한 대량생산과 소비가 가능해지고, 매스미디어의 도움으로 생활양식이 점차 획일화되어지자, ‘대중 속의 한 개체’라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남과 다른 새로운 자신’을 원하게 되었다.

이러한 의지표명의 결과가 복식에 반영되어 단순히 남과 다른 차림이라는 개성표현의 범주를 벗어나 기성세대의 사고방식을 거부하고 그동안의 패션의 형태나 착용방식까지도 부정하게 되었다(문진, 1989).

안티패션의 표현방식은 <사진 2>와 같이 기존의 과장적이고 고급스러운 주류패션에 대한 저항이라면 빈곤룩은 주류패션에 저항과 더불어 주류패션을 창조하는 패션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안티패션은 개성표현의 범주를 벗어나 기성세대의 사고방식을 거부하고 그동안의 패션의 형태나 착용방식까지도 부정하여 나타난다. 빈곤 룩은 기존의 패션의 형태나 착용방식이 나타나면서 또한, 새로운 패션의 형태나 착용방식이 나타난다.

이에 안티패션과 빈곤 룩은 복식에 대한 기존의 관념을 부정하여 새로운 자극을 주며 미에 대한 개념에 일대 전환점을 제시하여 새로운 방향을 모색한 패션으로 볼 수 있다.

3) 저항패션

저항패션은 다른 구성원들과 구별되는 특이한 복식으로 자신들의 그룹 특성을 시각화하여 그룹의 저항적 요소를 상징으로 표출하는 스타일이다. 저항패션은 가치관, 신조, 주된 관심 뿐 만아니라 그룹의 정체감을 나타내는 멤버에 의해 사용된 과시적이고 의식적인 의복의 형태나 외모를 통해 규범이나 가치에 항거를 표현하므로 기존의 기준에서 탈선적이고 풍자적이고 고발적이다(간문자, 1996). 빈곤 룩과 <사진 3>과 같이 저항패션은 패치워크, 탈색 및 염색, 페이딩, 프린징, 미완성과 핸드메이드 등의 표현기법을 사용한 다는 점에서 유사점을 찾을 수 있다. 하지만 저항패션은 빈곤룩에 비해 더욱 과장되고 강한 표현을 나타낸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안티패션과 저항패션은 정형화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존패션과는 상반되는 새로운 복식문화를 창출하려는 것으로 빈곤

룩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지만, 빈곤 룩은 상식적인 일반화된 패션의 개념과는 달리 지극히 단순하고 간소한 절제된 이미지, 혹은 비 장식적이거나, 오히려 과장적이고 비정형의 장식적인 이미지 등 상반된 이미지를 통해 새로운 장르의 패션으로 미약하나마 차별화 시킬 수 있었으며, 정리해 보면 <표 1>과 같다.

2. 빈곤미의 발생배경

1) 기능주의 운동의 확산

복식에서 기능주의는 전쟁 후 여성들이 전쟁에서 경험하였던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의상스타일을 고수하게 되면서 나타난다.

전쟁으로 여성들은 자립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서 육체적 노동에 필요한 합리적인 의복이 필요하였기 때문에 레이스나 프릴과 같은 주름과 화려한 장식이 어우러진 의복보다는 사벨의 저지로 만든 실용적이고



<사진 1> 빈곤패션.

자료출처: Caroline, C. (2003). Fashion at the edge.



<사진 2> 안티패션.

자료출처: Blaak. (2002 F/W). Collezioni.



<사진 3> 저항패션.

자료출처: Mcqueen, A. (2002 F/W). Collezioni.

<표 1> 빈곤 룩, 안티패션, 저항패션의 비교

유형	표현기법	스타일 및 특징	내적의지
빈곤 패션	앗상블라주 탈색 및 염색 주름, 구김 올 풀기 등	가난한, 걸쭉된, 보잘 것 없는, 하찮은, 불쌍한 등의 이미지를 갖는 스타일	미의 다원주의 입장 반소비 반물질주의
안티 패션	폴라주 그라피토, DIY 찢기, 구멍 뚫기 등	대담한 노출, 성의 혼란, 다양한 소재, 개성중시	강제, 억압, 속박 눈에 띄는 규율무시 대량소비 물질주의
저항 패션	레이어드 패치워크, 찢기 페인팅, 수공예기법	일탈, 마약, 포르노그래피 여성해방운동, 동성연애자유화	공동체적 개인주의 반소비 반물질주의

단순한 디자인은 큰 호응을 불러 일으켰다(양유미, 2002). 또한 여성들의 사회진출을 계기로 당시에 실시된 작업복을 통하여 '남녀공통'된 의복이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 함으로써 여성들에게 자신감을 안겨주었다. 빛바랜 회색상의와 풍성한 바지로 구성되었거나, 혹은 발목길이의 원피스 형태로 디자인된 작업복은 당시 노동에 편리하도록 기능성이 고려되었다(채금석, 2003). 이러한 외적인 장식을 피한 초라하고 가난한 이미지의 기능주의 패션이 실용적이고 합리적이라는 특성을 내세워 주목받기 시작하였다.

2) 사회에 대한 저항심리

여성 복식의 근대화 과정 중에 하나는 사회적 차별과 극단적인 계급 차 그리고 성차의 편견에 대한 여성들의 불만에서 야기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사회학자 조지 지멜(George Simmel)은 “반체제적인 것이 패션의 문체에 있어서 종종 선구자하는 사실은 특히 삶의 파격적인 형태에서 기인한다. 사회가 반체제적이고 비난하던 최하층민의 존재는 법률 및 모든 제도에 있어서 영원한 재제를 가하는 사회의 모든 것에 대한 공개적인 혹은 잠재적인 증오와 함께 전혀 새로운 형태의 외모를 갈구하면서 가장 순수하고 가장 미학적인 표현을 발견하게 된다. 이 끊임없는 갈구 속에는 파멸에 대한 욕망의 미학적 표현이 담겨져 있다.”라고 설명한 바 있다(채금석, 2003). 이러한 저항심리는 복식을 통해, 고정된 틀과 정형화된 아름다움을 파괴하고, 물질문명을 비판하고, 인간성을 회복하고자 했고, 계급, 사회에 대한 차별에 대한 무언가의 항거를 나타냈다.

3) 폐품을 이용한 예술운동

폐품을 이용한 복식은 1960년대에 자연에로의 회귀를 현상으로 중의류와 버려진 폐품의 재활용, 일상적인 것을 복식에 도입해서 나타났다. 이러한 폐품을 이용한 복식은 기존의 패션에서 사용되던 소재와 차별되고 낡고 오래된 것, 버려진 것, 평범한 것들을 복식에 도입하여 자원을 절약하고 디자인에 새로운 인식을 제시하고 소재의 영역을 확대시켰다는 긍정적인 효과를 제시한다.

4) 일본의 디자이너 등장

일본디자이너들의 패션은 서양의 복식을 파괴한 새로운 복식으로의 접근으로, 불완전성, 의식적인 결락(缺落), 초라함을 용인하는 '와비는 빈곤함 속에서

마음의 풍요를 즐기며, 검약, 단순성에서 찾을 수 있는 미의식이고, 사비는 한적함 속에서 깊은 멋과 정신적인 풍요로움, 아취를 지니고 있는 일본미학의 영향으로 나타났다(채금석, 2004). 1980년대는 새롭게 부상되는 동양에 대한 관심과 경제적으로 힘을 갖게 된 일본이 새로운 패션선도국으로 자리 잡기 시작한 시기이자 신비에 싸여있던 일본디자이너들은 전통적인 서구패션과는 다른 각도에서 해석한 총격적이고 실험성이 강한 작품들이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킨 시대이다. 이러한 일본의 미의식에 의해 거지룩이 선보이고, 그 이후 일본디자이너들의 미학에 의해 다양한 빈곤미가 나타나게 되었고, 현재에도 다양한 형태의 디자인을 선보이고 있다.

III. 현대패션에 나타난 빈곤미

1. 현대패션과 빈곤미

최근 사회적 트렌드는 급속도로 변화하는 사회문화의 가치관 또는 사회구조의 변혁에 따른 사회적 위기감, 하이테크의 발전, 다문화주의의 팽배, 초자유주의의 추구 그리고 여성의 힘에 의해 변화한다.

개인은 패션에서 미적 취향에 대한 차별화의 욕망으로서 새로움을 추구하며 찰나적 변화를 시도한다는 점에서, 패션을 유혹의 미학(the aesthetics of seduction)으로 정의 내리며, 이를 통하여 현대인은 즐거움을 추구한다고 하였다. 이는 패션이 소비 주의적 포스트모던 상황에서 더 이상 권력에의 의지가 아니며 개인의 취미의 차별화에 대한 메커니즘임을 뜻하는 것이다(김민자, 2004).

현대의 패션은 과거의 패션체계와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현대패션체계는 끊임없이 찰나적 변화를 시도하는데 이를 열린 패션(open fashion)이라 한다.

이러한 현대패션은 다각적인 측면에서의 대조가 뚜렷이 제시 되었으며, 기존질서의 파괴는 무형태, 부조화, 비대칭으로 처리되어, 세부적으로 단추처리를 안하거나, 해부적인 보디스, 혹은 불규칙하거나 심하게, 딱딱하게, 아니면 뒤를 깊게 파는 등, 그리고 플리츠를 넣어서 길게 하거나 짧게 하는 기괴한 패션법칙을 만들어 낸 것이다. 1990년대 이후 세계적인 불황은 복식에서 경제상황의 어려움을 느끼고 화려함을 회피하는 경향이 빈곤미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산업사회가 배출한 폐품이나 폐기물 등 사회적으로 배척

된 거칠고 저속하며 평범한 소재들을 예술로 승화시키고 외모의 더러움에 감추어진 진실을 더욱 진실된 것으로 만들고자, 빈곤, 폐허의 신비, 순수가 아닌 불결한 형태로 존재하는 실존으로 복귀하고자 하는 노력이 빈곤미로 나타난다.

2. 빈곤미의 미적 범주

채금석(2004)은 미적 범주란 미적 이념을 바탕으로 복잡하고 다양한 미의식의 성질적 차이를 몇 가지 유형으로 구분한 것이라 하였고, 최수현(1994)은 무수히 많은 미의 다양성 중에서 많은 수를 포괄하는 보다 일반적인 다양성을 미적 범주라고 하였다. 따라서 미적 범주는 정신적 가치에 의해 이루어진 미적 이념을 바탕으로 형성된 다양한 미의식을 그 특성에 따라 몇 가지 유형으로 구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현대패션에 나타난 빈곤 룩은 다양한 형태로 가난한, 거지같은, 보잘 것 없는, 빈약한, 불결한 느낌이 있는 이미지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빈곤미의 미적 범주는 전술한 빈곤미에 대한 개념정의를 토대로 그러한 이미지와 부합되는 상기의 패션 룩들을 미적 범주로 하여 그 조형적 특징을 통해 빈곤미의 유형을 해체미, 절제미, 미완성의 미, 자연미, 과시적 빈곤미로 분류하여 살펴본다.

3. 패션에 나타난 빈곤 룩

프랑스혁명 이후 정치적 아방가르드에 의해 ‘단정치 않은’ 외모가 연출된 이래 많은 사회 문화적, 예술

적 요소들이 푸어 룩 형성과정에 영향을 끼쳤으며, 최근에는 재활용, 폐품미학, 동양사상의 영향을 받으면서 보다 다양한 빈곤 룩으로 나타나고 있다.

1) 디럭스 푸어 룩(Deluxe poor look)

1920년대 후반 Gabrielle Chanel의 디럭스 푸어 룩(Deluxe poor look)은 우아함에 대한 개념으로 그 시기까지는 화사하다고 여겨지지 않아 패션에서 도외시되었던 직물인 저지(Jersey)로 만든 <사진 4>와 같은 ‘푸어 룩(Poor look)’을 창조하였고 또한 진짜 보석을 모조품으로 대치시키는 경향의 패션을 계속 소개하면서 ‘싸구려 멋’의 패션을 시작하였다(채금석, 1995).

보석에 있어서 부의 노골적 표현은 이름답지 않으며, 보석으로 치장한 의복은 범죄적이라고 까지 생각한 샤넬은 단지 ‘평범함’ 이상의 ‘보잘 것 없는’ 추미학을 수용한 푸어 룩의 선구자라 할 수 있으며, 또한 잘 정리되어 있으며 세련되고 소탈한 우아함이 구태의연한 과시적인 사치를 대치하여 ‘디럭스 푸어 룩(Deluxe poor look)’을 낳게 된다(이정후, 1998).

2) 히피 룩(Hippie look)

히피의 주된 관심사는 현대 문명의 이기, 물질 만능에 대한 저항으로 학교교육을 거부하였으며, 일을 통한 대가를 거부하여 가난을 통한 인간성 회복이다.

히피의 정체감을 표현하는 상징적 단서인 너털거리고 바랜 의상, 맨발, 빗질하지 않은 엉킨 머리, 씻지 않은 몸, 계절과 시대에 맞지 않는 의상, 국기를 잘라 만든 옷, 어울리지 않는 부조화의 코디네이션은 물질주의와 전쟁, 도시문명에 대한 저항을 표현한 것이며



<사진 4> 디럭스 푸어 룩

자료출처: 제임스, 레버. (2002). 서양패션의 역사. 정인희 옮김 (2005).



<사진 5> 히피 룩

자료출처: 제임스, 레버. (2002). 서양패션의 역사. 정인희 옮김 (2005).



<사진 6> 핑크 룩

자료출처: 김민자. (2004). 복식미학강의.

뜻밖의 복식 아이템을 레이어드 룩으로 겹쳐 입음으로써 히피만의 독특한 스타일 저항패션을 만들었다. (간문자, 1996; Wilkios & Bernard, 1990) 또한 <사진 5>와 같이 중고시장에서 구입한 낡은 중고의류를 입은 히피들의 남루한 차림은 복식을 통해 부에 대한 경멸과 가난을 통한 인간성 회복, 물질주의에 대한 비판을 표현하여 빈곤 룩을 나타내었다.

3) 펑크 룩(Punk look)

펑크는 히피 스타일의 열기가 식어가는 1970년대 중 반경 젊은이들을 위한 음악과 패션의 대량 소비주의에 대항하는 스타일로, 영국의 변화가인 킹스 거리(King's road)를 중심으로 충격적이며 요란스런 몸치장을 한 청소년 집단이 등장하였다. 어원에서 풍기듯이 펑크 스타일이란 기존의 질서와 균형 잡힌 미에 대한 반동이라 할 수 있다(김민자, 2004). <사진 6>은 빈곤 룩을 나타내는 펑크의 이미지로 기존의 복식이 나 원리를 파괴하여 복식을 추하고 지저분하게 표현하고 안티패션, 저항패션으로써의 펑크는 저항과 공격, 파괴의 이미지를 가죽 등을 사용하여 하위문화집단에게 획기적이고 공동체를 느낄 수 있는 복식으로 표현되었다.

4) 샤비 룩(Shabby look)

프리카 패션(Freak fashion)은 '제멋대로, ~광(狂), 기인(奇人), 이장(異裝)'의 의미를 갖는 용어로 패션은 항상 극히 상식적인 감각의 것과 아방가르드한 것이 함께 나타난다. 프리카 패션의 방향으로 제시된 샤비 룩(Shabby look)은 1970년대 초기 포버티즘(Povertis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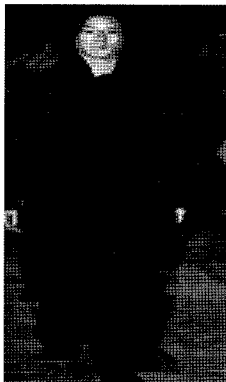
으로 등장한 스타일로 조잡하고 낡은, 초라한 패션으로 1980년대 누더기 룩, 거지 룩으로 소개되었다(채금석, 2003). <사진 7>은 샤비 룩의 스타일로 구깃구깃한 소재와 술기부분을 미완성으로 남겨둠으로써 마무리가 덜 된 누더기 효과를 내었다. 1990년대 등장한 샤비 룩은 말 그대로 빈곤 룩으로(이경희, 2001) 대표적인 디자이너로는 폼프 데 가르송과 갈리아노, 요지야마모토가 있다.

5) 슈링크 룩(Shrunk look)

슈링크란 오그라들다, 작다, 줄어들다, 주름이 잡히다 의 뜻을 가진 용어로 1980년대 여성들이 작은 사이즈의 스웨터를 입는 스타일로 <사진 8>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기계에 의해 일부러 의복을 주름잡아 줄어들게 하거나 눌러서 작게 만든 복식을 마치 다른 사람의 의복을 빌려 입은 듯 한 느낌, 사이즈가 부적합한 의복을 착용함으로써 빈곤미를 나타내는 스타일이다.

6) 그런지 룩(Grunge look)

1980년대 미국 북서부의 성장하는 도시인 시애틀의 노동자들의 스타일로 등장한 그런지 룩은 오물, 쓰레기, 폐품 등을 의미하는 'grungy'에서 유래한 것으로 더럽고 혐오감을 주는 지저분한 것을 의미하는 미국 청소년층의 신조어이다. 기온이 낮고 습한 시애틀의 기후 때문에 몸을 보호하기 위해 중고의류를 여러 벌 겹쳐입었던 가난한 음악가들의 남루한 스타일인 그런지 룩의 특징은 낡은 뜨개 옷, 울이 풀어지고 헤진 진바지, 사이즈가 부적합하고 헐렁한 티셔츠, 투박한 소



<사진 7> 샤비 룩
자료출처: Arakawa, S. (2002 F/W). Collezioni.



<사진 8> 슈링크 룩
자료출처: Versus. (2002 S/S). Collezioni.



<사진 9> 그런지 룩
자료출처: Yamamoto, Y. (2002 F/W). Collezioni.



<사진 10> 거지 룩
자료출처: Miyake, I. (2002 F/W). Collezioni.

재, 줄무늬 양말, 천 운동화 등 <사진 9>와 같이 전체적으로 밝고 후줄근한 느낌을 준다.

성공한 사람들이 가난한 음악가들을 흉내 내는 ‘dressing-down’ 현상은 사회의 불안을 반증하는 증거이자 부의 역설적 과시 즉, 성공을 증명하기 위해 빈곤해 보이도록 가장하는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준다.

7) 거지 룩(Beggarman look)

1980년대 전반은 새롭게 부상되는 동양에 대한 관심과 경제적으로 힘을 갖게 된 일본의 Rey Kawakubo, Yoji Yamamoto, Issey Miyake들이 디자인한 빈곤미를 나타낸 패션에 ‘거지룩’(Beggarman look)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일본의 거지 룩은 <사진 10>과 같이 소재의 불균제, 구성의 불완전 등 빈곤미를 형상화시키는 경향이 있다. 빈곤의 조형적인 특성을 이용하여 얼룩과 오염의 이미지를 재생산하여 ‘청결함’의 미학에 위배되는 ‘불결함’의 미학을 제시하였다.

4. 빈곤미의 조형적 특징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첫째 빈곤미의 형태는 비대칭적인 형태, 느슨한 형태, 자유로운 착장방식이 만들어내는 비구조적인(Uncon-structive)인 형태와 직선형태의 단순한 실루엣, 그리고 겹쳐 입기로 레이어드 룩, 빅 룩의 형태로 나타난다.

둘째 빈곤미를 나타내는 표현기법으로는 앳상블라

쥬, 탈색 및 염색, 주름 및 구김가공, 울 풀기의 형태로 나타난다.

셋째, 색상의 특징으로는 회색과 검정색을 기조로 하여 어두운 느낌을 나타내면서 빈곤함을 나타낸다. 또한 색상이 밝아서 퇴색한 느낌을 주는 회색, 자주색, 남색, 갈색, 검정색 등을 사용하여 채도와 명도가 낮고 전체적으로 어둡고 칙칙한 느낌을 주는 색, 또는 조화되지 않은 많은 색상을 동시에 대비하여 전체적으로 조잡한 부조화를 느끼게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넷째, 빈곤미를 나타내는 소재의 특징으로는 중고 의류와 낡은 직물의 사용과 자연소재, 폐품의 활용을 들 수 있는데, 1960년대 히피 문화 속에서 유행되었던 중고의류의 선호는 과거에 대량 생산되는 상품의 확실성과 물 개성화에 대한 반발과 과거에 대한 회귀 의식에서 나타났고 이는 의복소재의 재활용이라는 의미에서 의의가 있다. 자연소재는 가공되지 않은 생지 상태의 소재, 자연의 질감을 그대로 영성한 표면을 가진 소재, 꾸깃꾸깃하고 불규칙한 표면을 가진 소재를 사용하여 빈곤미를 나타내고 있다. 폐품소재의 활용은 주변에 버려지는 하찮은 물건일지라도 시각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지며 복식의 소재로 사용됨으로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게 되어 복식의 소재의 범위를 넓히는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5. 빈곤미의 유형

위에서 살펴본 빈곤 룩과 그 조형적 특징을 통해 현대패션에 나타난 빈곤미의 공통된 특징을 살펴봄

<표 2> 빈곤룩의 조형적 특징

	형 태	색 상	소 재	표현기법
디럭스 푸어 룩	절제 단순	블랙을 주조색으로 사용	저지 등 소외되었던 소재	절제된 단순미
히피 룩	비대칭적 헐렁한	다양한 색상	중고의류, 낡은 직물, 자연소재	앳상블라쥬 패치워크, 레이어드
펑크 룩	비대칭적 비구조적	블랙을 주조 색으로 다양한 색상 사용	가죽, 데님 중고의류	폐품활용 탈색 및 염색, 찢기
샤비 룩	절제 단순	저채도 저명도 색상, 자연색	자연소재 낡은 직물	울 풀기, 찢기 탈색 및 염색 주름, 구김가공
슈렁크 룩	인체를 드러냄	다양한 색상	자연소재 낡은 직물	주름, 구김가공 탈색 및 염색
그런지 룩	비대칭적 헐렁한 비구조 형태	다양한 색상	중고의류 낡은 직물	앳상블라쥬, 찢기 주름, 구김가공 탈색 및 염색
거지 룩	절제 단순	회색, 자주색 남색, 갈색 검정색 등의 저채도 저명도	중고의류 낡은 직물	앳상블라쥬, 주름, 구김가공 탈색 및 염색, 찢기

으로써, 빈곤미의 유형을 절제미, 미완성의 미, 자연미, 과시적 빈곤미, 해체미로 분류하여 이를 <표 3>으로 정리하였다.

1) 절제미

빈곤미에 나타나는 절제된 표현의 간결미는 서구의 미니멀리즘적인 형식과 ‘와비’미학으로 회자되는 청빈(淸貧)과 질박한 실체를 아름다움으로 보는 미의 식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미니멀리즘에서 나타나는 기본 성격이 선사상과 서로 유사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종교적인 공(空)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소의 미, 제거의 미학으로 최소한의 형식을 보여주고 있다.

빈곤미를 나타내는 복식은 장식을 배제하고 그 형태와 실루엣으로 외적인 미를 표현하는 것이 특징이다. 즉 절제미의 패션은 세부장식을 철저히 배제하고 자연스런 형태미를 강조하는 직선적인 실루엣을 강조하면서 인체에 대한 최소한의 기능성만을 고려하여

나타난다. 빈곤미를 선보이고 있는 디자이너들의 작품은 최소한의 장식을 사용하고, 동양의 미적 표현의 형태인 여백의 미와 절제의 미를 표현하고 있는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사진 11>은 절제미를 나타내는 Yohji Yamamoto의 디자인으로 직선적인 실루엣과 최소한의 기능성을 고려한 디자인으로 세부장식을 배제한 디자인이다. <사진 12>는 Ichiro Seta 2004/2005의 디자인으로 세부장식을 배제하고 검정색의 사용과 단순한 실루엣을 통해 절제미를 나타내고 있다.

현대복식의 조형적 특성을 ‘순수성의 지향’과 ‘우연성’의 존중이라고 하였는데, 이 중에서 복식에서의 순수성의 지향이란 평면적, 고정적 요소를 제거하고 장식적 수공예적인 요소를 부정하여 움직임에 따라 다이내믹하게 변화되는 입체적 실루엣의 추구라고 하였다(이현숙, 1989).

1916년 이후 보그는 끊임없이 심플함과 고품질(高品質)이 패션의 특징 중에서 변하지 않는 가치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이미숙, 1998) 절제미는 지속

<표 3> 빈곤미의 유형

유형	형용사	look	특징
절제미	빈약한 초라한	디럭스 푸어 룩, 사비 룩	장식 배제, 직선적인 단순한 실루엣
자연미	보잘것없는 가난한	히피 룩, 슈렁크 룩, 거지 룩	자연친화적 소재 자연스러운 색상, 실루엣
미완성의 미	납아빠진 조잡한 불완전한 결함이 있는	그런지 룩, 사비 룩, 핑크 룩, 히피 룩	불균형, 불완전에 의한 비구축적 형태, 다양한 실루엣
과시적 빈곤미	초라한 불쌍한 누더기를 걸친	슈렁크 룩, 핑크 룩, 디스트레스트 룩, 거지 룩	과장된 형태 과장된 장식 다양한 실루엣
해체미	덧수룩한 차림의 불완전한, 불품없는	핑크 룩, 그런지 룩	형태, 구조 파괴 다양한 실루엣



<사진 11> 절제미.
자료출처: Yamamoto, Y. (2002 S/S). Collezioni.



<사진 12> 절제미.
자료출처: Margiela, M. (04-05 F/W). Book Moda.



<사진 13> 자연미.
자료출처: Tatsuno, K. (2001 S/S). Book Moda.



<사진 14> 자연미.
자료출처: Seta, I. (04-05 F/W). Book Moda.

적으로 추구되는 이상적인 아름다움이다.

2) 미완성의 미

미완성의 미는 복식에서 좌우 비대칭을 이루는 불균형, 불완전에 의한 비구축적 형태의 해체적이고 파괴적인 특징으로 나타난다.

완벽한 봉제로 끝마무리를 완성하지 않은 채 남겨 두거나, 비대칭적인 선으로 처리한 헐 라인 울을 풀어 해친 상태로 두거나, 커팅한 자체로 마무리함으로써 보는 이의 상상력과 감상을 통해 그 구성의 한계를 확대해 나간다. 남겨놓은 여백을 통하여 이미지의 탄력을 불어 넣어 무한 공간으로 비상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잠재함을 표현한 것이다. <사진 13>은 Koji Tatsuno 2001년 디자인으로 진을 커팅하고, 좌우 비대칭을 통해 파괴적인 빈곤미를 표현하고 있고, <사진 14>는 니트소재를 사용하여 비대칭적인 선으로 처리하여 울이 풀어 해쳐진 상태로 마무리하여 빈곤미를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미완성의 미는 서양인들에게 생략 속에 내재된 본질의 정수(精髓)를 표현하는 고전적인 일본의 미학으로 받아 들여졌으며, 또한 정형화된 구축적 형태의 특성을 갖는 오토쿠튀르적 패션에 반하는 안티 쿠튀르적 패션으로 평가되었다(채금석, 2004).

3) 자연미

빈곤미를 나타내는 자연미는 자연에 대한 회귀의 식으로서 자연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가 자연에 동화된 삶을 추구하고, 자연과 하나가 되는 공의 세계를 표현하는 자연미의 내적의미와, 자연 친화적 소재의 사

용, 그리고 색상과 여유 있고 편안해 보이는 자연스러운 실루엣의 외적 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사진 15>는 Vivienne Westwood의 2004년 컬렉션 디자인으로 순수한 자연미를 추구하는 자연 색상인 베이지, 자연소재를 사용하여 빈곤미를 제시하고 있으며, <사진 16>은 Robert Cary의 가공하지 않은 천연의 느낌의 소재와 브라운 색상, 꾸깃한 표면의 소재를 가지고 만든 디테일 등으로 빈곤미를 제시하고 있다.

자연친화적 소재를 사용한 빈곤미 스타일의 자연미는 가공하지 않은 천연의 느낌을 살려 자연과 하나된 인간의 모습을 표현하고, 색채에 있어서도 자연성의 추구는 순수한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에크로(ecru)와 같이 가공되지 않은 색상과 빛이 바래서 퇴색해 버린 듯한, 저명도·저채도의 색상, 땅, 하늘, 나무에서 찾을 수 있는 자연적 색상인 화이트, 베이지, 그레이, 브라운 등을 사용해 표현하였다.

결론적으로 빈곤미에 표현된 자연미는 절제와 고요, 소박함을 추구하고, 궁극적으로 자연과 인간, 자연과 복식, 인간과 복식의 관계성 속에서 서로 분리시킬 수 없는 비이원적인 정체성을 표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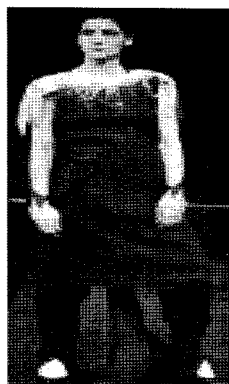
4) 과시적 빈곤미

의복을 착용하는 기본적인 동기는 다양한 사회적 목적으로 설명될 수 있는데, 장식적 기능을 통해 타인과의 구별시키고, 이러한 구별을 통해 의복의 상징은 착용자의 신분, 지위나 직업 등의 정보를 나타내는 지위표시 기능을 하게 된다.

과시적 빈곤(conspicuous poverty)이란 부를 과시하기 위한 전통적인 조형 대신 빈곤미를 채택함으로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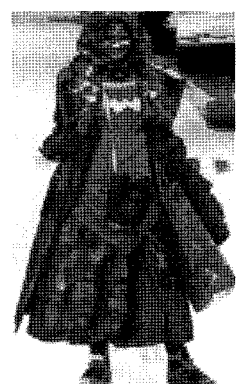
<사진 15> 미완성의 미. 자료출처: Westwood, V. (2004 F/W). Book Moda.



<사진 16> 미완성의 미. 자료출처: Cary, R. (04-05 F/W). Book Moda.



<사진 17> 과시적 빈곤미. 자료출처: Sakis, F. (02-03 F/W). Book Moda.



<사진 18> 과시적 빈곤미. 자료출처: Isao, K. (03-04 F/W). Book Moda.

기존의 고정관념적인 표현방법을 붕괴시키고 오히려 빈곤한 이미지를 택하는 것이다. 이러한 과시적 빈곤미를 드러내는 디자인을 보면 <사진 17>은 Fouad Sakis의 디자인으로 의도적으로 소재의 색상을 지저분하게 염색을 하여 불결의 느낌을 제시함으로써 빈곤미를 제시하고 있으며 <사진 18>은 Kanneko Isao의 디자인으로 방랑자라는 콘셉트의 디자인으로 화려한 색상의 조합과 불완전한 착장 방식을 통해 빈곤미를 제시하고 있다.

과시적 빈곤미는 의도적으로 불완전한 복장을 하거나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무엇인가 잘못된’ 뉘앙스를 풍기는 것으로 기존의 아름다움에 관한 모든 관념에서 벗어나 ‘가난’, ‘황폐’, ‘불결’의 이미지를 나타낸다.

5) 해체미

20세기 후반 의도적으로 복식에 슬래쉬 하고, 손상하고, 찢고, 흠을 내는 등 새것이 아니면서 착용하여 새것만큼의 가치적 의미차이를 외형에 엿매이지 않으려는 본질의 가치성과 내적 의미에 중요성에 가치를 둔다는 것으로 궁핍한 의복에 새로운 활력을 부여하게 되었으며, 그 의미적 적용이 ‘해체’라는 문자 그대로 적용된다. 이러한 해체가 복식에 미로 적용되어 해체미를 나타내는데 멀쩡한 천에 칼집을 내고, 휴지처럼 불품없이 구겨놓기도 하고 혹은 휴지 조각 같은 천으로 의복을 만들어 신체를 덮는다는 기본 개념과 새것이라는 물질의 개념을 파괴하고 의복의 형태와 구조를 파괴해서 미를 나타낸다. <사진 19>는 Jean Colonna의 2002년 디자인을 보면 천에 슬래쉬를 의



<사진 19> 해체미.
자료출처: Colonna, J. (2002 S/S). Collezioni.



<사진 20> 해체미.
자료출처: Seta, I. (04-05 F/W). Book Moda.

복의 형태를 파괴함으로써 빈곤미를 제시하고 있으며 <사진 20>은 Ichiro Seta의 디자인으로 의복의 형태와 구조를 파괴하였으며, 회색의 색상과 레이어드 착장 방식을 통해 빈곤미를 나타내고 있다.

이처럼 일상적인 것, 하찮은 것, 과거에 추하다고 생각되던 소외된 것들이 해체주의적 시각을 통해 새로운 미학으로 빈곤미의 특성으로 나타난다.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첫째, 빈곤미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발생배경을 고찰한다. 둘째, 빈곤미의 범주를 고찰하고 셋째, 시대별 패션에 나타난 빈곤미의 조형적 특징을 분석하여 패션에 나타난 빈곤미의 특징을 비교분석하고 그 미래를 전망해보고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빈곤미란 복식에서 빈곤을 나타내는 형태는 외적으로 부를 상징하는 디자인 요소를 버리고, 빈곤하게 보이도록 가장하는 역설적인 스타일 또한 빈곤해 보이는 디자인 요소를 나타낸 패션을 빈곤 룩이라 한다. 빈곤 룩은 상식적인 일반화된 패션의 개념과는 달리 지극히 단순하고 간소한 절제된 이미지, 혹은 빈곤해 보이는 이미지를 통해 비장식적이거나, 오히려 과장적이고 비정형의 장식적인 이미지 등 상반된 이미지를 통해 새로운 장르의 패션으로 미약하나마 차별화 시킬 수 있다. 빈곤 룩의 발생배경은 기능주의 운동, 계급에 대한 저항심리, 폐품을 이용한 미술 운동, 1980년대 일본디자이너들의 대두로 인해 동양 복식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일본미의식에 의한 빈곤미가 제시되면서 다양한 빈곤 룩이 나타남을 확인 할 수 있다.

시대별 빈곤패션은 1920년대 화사하다고 여겨지지 않아 패션에서 도외시되었던 직물, 값싼 모피로 만든 의상이나 장식 등을 이용하여 창조된 샤넬의 푸어 룩을 기점으로, 1960년대 단정하고 깨끗한, 부유함 등에 가치를 부여하는 사회에 대한 저항을 하기 위해 가난과 더러움을 중시하고 불결하고 단정치 못한 외모를 지니게 하는 히피가 발생하게 된다. 이후 1970년대 중반경 일상적인 것, 소외되고 추한 것, 하찮은 것들을 적극적으로 미학의 영역으로 수용한 펑크가 나타났다. 1980년대에는 미국의 그랜지 룩을 시작으로 새롭게 부상되는 동양에 대한 관심으로 일본의 디

자이너들이 선보인 충격적이고 실험성이 강한 작품들을 지칭하는 거지 룩이 발생하였고, 이를 토대로 샤피 룩, 슈링크 룩, 디스트레스드 룩, 레그스, 포브르 룩 등 빈곤미를 나타내는 패션의 명칭이 다양하게 나타났다.

둘째 빈곤미의 유형은 절제미, 미완성의 미, 자연미, 과시적 빈곤미, 해체미로 그 유형을 분류하였으며, 절제미는 최소한의 장식, 최소한의 색상으로 자연스런 형태미를 강조하는 직선적인 실루엣으로, 미완성의 미는 비대칭을 이루는 불균형, 불완전에 의한 비구축적 형태로 나타났다.

자연미는 자연과 하나 되는 공의 세계를 표현하는 내적의미와 자연친화적 소재, 색상, 자연스러운 실루엣의 형태로 표현되었고, 과시적 빈곤미는 과장된 장식과 불완전한 형태로 불결의 이미지가 표현되었고, 해체미는 구성방식과 착장 방식, 디자인 등 기존의 형식을 해체하여 비구축적 형태로 빈곤의 이미지를 나타냈다.

셋째, 조형적 특징에 있어서 형태는 직선형태의 단순한 실루엣과 비대칭적인 형태, 느슨한 형태, 자유로운 착장방식이 만들어내는 비구축적인(Unconsecutive)인 형태, 그리고 겹쳐 입기로 레이어드 룩, 빅 룩의 형태로 살펴볼 수 있었다. 소재는 빈곤미를 나타내는 중고의류와 낡은 직물, 자연소재, 폐품을 활용하고, 표현 기법은 앳상블라쥬, 탈색 및 염색, 주름, 구김가공, 울 풀기 등을 통해 제시되고 있다. 색상은 낡은 듯하고 바란 느낌을 주는 채도와 명도가 낮고 전체적으로 중명도, 저채도의 색이 많이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서 현대패션은 시대적 구분이나 절대적 진리와 미를 추구한 가치 체계 대신 다양성의 용납을 수용하며, 문화나 장르가 섞이는 현상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파악 할 수 있었다. 빈곤미는 미적 범주의 차원에서 추하고 소외된 일상적인 것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고 미의 영역으로 인정하는 시각의 전환을 이룬다는 점, 그리고 미적 균형을 통한 진정한 인간성의 회복을 모색하는 발전적인 가능성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 사료된다.

참고문헌

- 간문자. (1996). *저항패션이 모패션으로 전이된 현상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권정원. (1997). *현대패션에 나타난 재활용패션 디자인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경희. (1996). *현대복식에 나타난 해체주의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민자. (2004). *복식미학강의*. 서울: 교문사.
- 라사라교육개발원. (1999). *20세기 유행의 변천사*. 서울: 라사라패션정보.
- 문진. (1989). *20세기 후반의 Anti-Fashion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엄소희. (2002). 아르테 포베라(Arte Povera)가 현대패션에 미친 조형적 특징에 관한 연구. *복식문화학회*, 10(3), 270-282.
- 이경희. (2001). *20세기 모드*. 서울: 교학연구사.
- 이미숙. (1998). *샬벨 스타일 디자인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봉덕. (2001). *21세기 전환기 패션의 미학적 특성*.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이정후. (1998). *포스트모더니즘 패션에 나타난 불확정성*.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이현숙. (1989). *복식미학*. 서울: 경춘사.
- 조정미, 김예형. (2003). 현대패션에 나타난 젠 양식에 관한 연구. *한국복식학회*, 50(6), 163-176.
- 제임스, 레버. (2002). *서양패션의 역사*. 정인희 옮김 (2005). 서울: 시공아트.
- 채금석. (1995). *현대복식미학*. 서울: 경춘사.
- 채금석. (1997). *패션세계입문*. 서울: 경춘사.
- 채금석. (2003). *세계패션의 흐름*. 서울: 지구문화사.
- 채금석. (2004). 현대 일본패션에 내재한 반 꾸밈 미학. *복식문화학회*, 54(8), 129-147.
- 채금석. (2004). 현대 일본패션에 내재한 꾸밈 미학. *복식문화학회*, 54(3), 113-127.
- 최태경. (2000). *동아프라임 영한사전*. 서울: 두산동아.
- 최수현. (1994). *복식의 미적 범주-르네상스·바로크 복식에 적용하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최혜원. (1995). *Arte Povera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패션전문자료사전 편찬위원회. (1997). *服飾大事典*. 서울: 한국사전연구사.
- 한경미. (2004). *일본패션디자이너 의상에서 나타난 Zen-style에 관한 연구*. 덕성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황지연. (1992). *패치워크기법을 응용한 복식디자인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Caroline, E. (2003). *Fashion at the edge*.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Wilkos, D. G. & Bernard, S. (1990). *Art past art present*. New Jersey: Harry Abrams Inc.